

코로나19·독감·감기 ‘트리플데믹’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 3574명

광주·전남 방역당국 ‘초비상’

동네병원에 호흡기 환자 몰려

마스크 쓰고 추가 백신 서둘러야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과 독감, 감기 등 증상이 비슷한 질환이 동시 유행하는 ‘트리플데믹’ 우려가 커지면서 광주·전남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병원마다 기침과 목 아픔, 발열, 몸살 등을 호소하는 호흡기 환자들이 늘고 있는 데다, 모임과 이동이 잦은 연말 시즌까지 겹치며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마스크 쓰기·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별 위생 관리와 추가 백신 접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4319명으로, 일요일 기준 14주 만(지난 9월 4일 7만 2112명)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1주일 전인 지난 4일(4만6550명)과 비교해도 7769명이나 늘었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일부터 1주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체됐던 유행세도 반등하는 모습이다.

광주·전남도 이날 각각 1894명, 1680명 등 3574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4일 3146명보다 428명이 많은 것이다.

특히 최근 광주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광주지역 12월 첫째 주 주간 신규 확진자를 살펴보면, 1만1682명으로 하루 평균 1669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9.7%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은 2% 감소했다. 또 광주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발생률도 122.1명으로, 17개 시도 중 세종시 다음으로 높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07로 10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 1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12월 재감염 비율도 확진자의 15.4%(10월 9.7%, 11월 12.4%)로 상승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위험층이 밀집해 있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63개 기관에서 396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다는 점이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함께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과 감기 환자들까지 동네병원으로 몰려들면서, “요즘 광주에서 기침 소리가 안 나는 집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광주지역 병원과 내과 등에 따르면 12월 들어 두통과 기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지난 달에 비해 10~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증가세가 시작단계인 탓에 앞으로 호흡기 질환자는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특히 감기 환자들의 증상이 코로나와 비슷해 어린이를 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요일 기준 석 달여 동안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11일 오후 광주 북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부모들의 우려는 더욱 큰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동병원에는 연일 환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폐렴 진단을 받아도 입원실이 없어 보호자들이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병원 김상훈 내과 원장은 “예전 같으면 병원을 찾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감기 증세에도 혹시나 코로나일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상당수”라면서 “겨울철은 원래 노인 호흡기·폐 질환자들의 방문이 많은 시기인데, 코로나 상황에 감기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시민들에게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추가 백신 접종 등을 독려하고 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현재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연일 5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고, 독감과 감기 등 여타 호흡기질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주기적 실내 환기와 소독,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을 비롯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요양병원 관계자 등은 반드시 확진일 또는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개량 백신을 접종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소년도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개량백신 접종 가능

방역당국, 겨울철 접종 대상

변이 취약한 12~17세 추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12세 이상 청소년도 변이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개량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12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시작한다. 예약 접종은 19일부터다.

1·2차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마지막 접종일부터 90일이 지난 청소년은 오미크론 BA.1, BA.4/5 변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화이자 2가 백신 2종 중 하나를 택해 맞을 수 있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백신인 노바백스로도 접종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청소년이 많고, 2가 백신의 안전성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접종

연령 하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5세 이상)과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은 12세 이상에게 2가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이번 접종연령 하향 결정에 힘을 더했다.

국립암센터와 서울대 연구팀은 기존 바이러스 대비 오미크론 감염 가능성이 10~15세는 5.28배, 15~19세는 5배로, 50세 이상(2배)이나 75세 이상(1.12배)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달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는 지금까지 18명 발생했으며, 이중 14명이 고위험군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양극단 할머니, 시민들이 인권상 드립니다 ▶7면

호날두·네이마르·케인 ‘눈물의 월드컵’ ▶18면

세계의 문화도시 가다 - 노르웨이 오슬로 ▶22면

한빛원전 4호기 발전 재개

15일 출력 100% 도달 예정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가압 경수로형·100만 kW급)가 오는 15일 출력 100% 도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4호기가 16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에 발전을 재개했고, 오는 15일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빛 4호기는 2017년 정기검사 도중 격납 건물 벽면에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틈(공극) 140곳, 외벽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공극을 채워 넣는 보수공사를 마치고 안정성 검사를 거쳐 지난 9일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지역민과 환경단체들은 “안정성 검사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7년 5월 18일부터 진행된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를 진행해 완료 했으며, 증기발생기 교체와 격납건물 공극보수를 포함한 주요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정비를 수행해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무산

여야, 15일까지 재협상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관련기사 4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지난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재연장전’에 돌입했지만, 11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안 야당 단독 가결로 한층 더 가팔라진 대치 전선 속에 처리 전망이 어두워진 형국이다.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숙절없이 지나 보낸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오는 15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데다 해임건의안 처리로 정국이 급랭한 탓에 교착국면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이 작품은 국민 정지은, 박지은, 박홍규, 도지인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2 대학생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천 원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 원 속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천 원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 원에 당신의 행복을 살 수도 있습니다.

소액 기부로 당신의 행복을 사시겠습니까?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